

창세기 30장 25-34절 말씀

대화①

- 25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
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
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
- 26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
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
- 27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
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
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
- 28 또 이르되 네 품삷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

대화②

- 29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
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,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
외삼촌이 아시나이다
- 30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떼를 이루었으니
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
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
- 31 라반이 이르되
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

대화③

- 야곱이 이르되
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
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 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
- 32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 떼에 두루 다니며
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
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
이같은 것이 내 품삷이 되리이다
- 33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삷을 조사하실 때에
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
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
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
- 34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

창세기 30장 35-43절 말씀

외삼촌 라반의 행동

- 35 그 날에
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
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
양 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
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
- 36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
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를 치니라

야곱의 행동

- 37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흥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
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
- 38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 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
양 떼를 향하게 하매
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배니
- 39 가지 앞에서 새끼를 배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
- 40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
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
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
- 41 튼튼한 양이 새끼 뱌 때에는
야곱이 개천에다가 양 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
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배게 하고
- 42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
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
- 43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 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